

#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송 성 욱\*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영역의 확장 |
| II. 원전 비평  | V. 결론      |
| III. 주석 연구 |            |

## I. 서론

문학 작품(Work)은 작가와 독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단히 다른 의미를 창출한다. 이 상황을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이는, 어떤 가치도 배제된 중립적인 문자 행위로서의 원전이 '텍스트(Text)'이다. '텍스트'를 둘러싼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서 '텍스트'는 독서 대상 혹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객관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텍스트 연구는 엄밀한 학적 대상을 확정하는 것에 그 일차적 목표를 두게 된다.

---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고전소설과 관련하여 텍스트 연구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고전소설이 존재했던 특수한 행태(行態)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저작물은 대개 작가가 뚜렷이 존재하고, 한 원고가 똑같은 형태로 무한히 복제되며, 중간에 수정이 되더라도 수정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은 이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의 소설은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목판이나 활자 인쇄술이 없었던 시기는 아니지만 소설 책에 관련한 여전히 필사의 시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윌터 J.옹에 의하면 이 필사의 시대에는 문자적 사유방식보다는 구술적 사유방식이 더 우세했다. 조선시대 소설은 모본을 필사하고 필사된 새로운 저본을 다시 필사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본을 가지게 된다. 그나마 확정된 텍스트가 존재하는 방각본도 새로운 목판이 만들어지면서 저본에 따른 이본이 만들어진다. 이 필사나 판각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존재하는 이본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품의 구조나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서 어떤 이본을 선택해야 하는데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다.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의 일차적 목표가 바로 이러한 엄밀한 연구를 위한 대상의 선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본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면 텍스트의 소통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물론 텍스트 연구가 이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원전 확정 이외에도 역주나 주석과 같은 작품 분석이나 해석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역시 텍스트 연구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텍스트 연구가 그 자체로는 완성된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학 연구는 작품의 가치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의 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따라서 원전 비평과 같은 텍스트 연구는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점에서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작품 연구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가 그 자체로 독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과 향후 더 확장되어야 할 텍스트 연구의 영역을 고찰하기로 한다.

## II. 원전 비평

고전소설 연구사에서 원전 비평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다. 대체로 이 원전 비평은 이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계통을 밝히거나 원전을 밝히려는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춘향전>, <구운몽>, <홍길동전>에 대한 원전 비평에서부터 <토끼전>, <옥루몽>, <심청전>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이본 연구가 이루어져 온 셈이다.<sup>1)</sup> 이러한 과정에서 이본의 계통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정인 경우도 있다.

고전 작품의 원전을 확정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다. <구운몽>과 같이 작가가 밝혀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제한적인 자료만으로 원전의 여부를 가리기는 사실상 힘들다. 더구나 소설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천대받았던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온전한 원전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원전 비평이란 원전을 확정짓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의 결과가 그것이 아니라 이본 사이의 어휘나 자구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1)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춘향전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정규복, 『한국 고전문학의 원전비평적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2.

인권환, 「토끼전이본고」, 『아세아연구』 29호, 1968.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민사 1981.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이창현, 『경판 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원전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본 연구 역시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본 사이의 차이점이 유의미한 결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연구의 결과가 참으로 허망하다. 이본의 차이점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지니는 해석학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이본 연구 자체로는 온전한 연구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원전 비평에 대한 연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이왕에 나와 있는 원전 비평의 결과조차 논문에 심세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소설책에 대한 원전 비평 자체의 한계인지 아니면 방법론의 문제인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원전 비평 분야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보인다. 작품론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별다른 논쟁이 없다는 것이다. 원전 비평 역시 인문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라면 논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논쟁이 없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없어서 일수도 있고,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논쟁거리가 없다는 것은 크게 생각해 볼 일이다.

고전소설 원전 비평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단순하다는 생각이 든다. 발품을 팔거나 목록을 뒤져서 찾을 수 있는 이본들을 한껏 모아놓고 자구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그 가감된 부분을 정리해서 계통을 밝히는 작업이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다. 얼마나 많은 이본을 대상으로 했는가, 얼마나 대조를 잘 했는가 등이 관건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떤 원전 비평의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찾거나 대조를 다시 해서 잘못 파악된 부분을 찾아야 한다. 대조를 다시 하는 일은 대단히 따분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논리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덜 했는지를 가리는 일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전 비평 자체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텍스트 연구는 자료 찾거나 자구 대조와 같은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홍길동전> 원전 비평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홍길동전>은 아직 원전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이를 일으킨 이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창작 시기가 빠르며,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향유되었기 때문에 이본의 수도 많으며 이본 간에 차이도 유의미한 결과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조동일은 『한국 소설의 이론』에서 우리 소설사가 일원론적 인식에서 이원론적 인식으로 전개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논증 자료로서 <홍길동전> 이본의 계통을 들었다.<sup>2)</sup> 정규복에 의해서 밝혀진 <홍길동전> 이본의 계통을 보면 한남장본에서 어청교본으로 이행된다고 했는데,<sup>3)</sup> 한남본은 일원론적 인식에 가까운 모습을 어청교본은 이원론적 인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필자에 의해서 <홍길동전>이본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는데 필자는 한남본보다는 야동본이 더 선행하는 판본이라고 했다.<sup>4)</sup> 이 야동본은 어청교본을 파생시킨 이본으로 이원론적 인식을 보이는 작품이다. 물론 조동일은 다른 논의를 충분히 한 결과 소설사의 구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홍길동전> 이본의 계통 논의가 그의 논리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나 만약 필자의 논의가 맞다면 조동일의 소설사 논의에 삽입된 논증 자료로서의 <홍길동전> 이본 역사는 잘못 삽입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정 국어교과서에 인용된 <홍길동전> 역시 한남본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후 <홍길동전> 작품론에서 필자의 논의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던 중 정규복은 다시 <홍길동전> 이본을 연구해서 필자의 논의를 반박했다.<sup>5)</sup>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한남본 선행설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경판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한 이창현은 필자와 정규복의 논의가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sup>6)</sup> 다시 말해 한남본과 야동본이 모두 고본이며 이 둘 이전에 다른 모본이 존재했을 것이라

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6, 288-292쪽.

3)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국어국문학』 48호 · 51호, 1970 · 1971.

4)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신고」, 『관악어문연구』 13호, 1988.

5) 정규복, 「홍길동전 텍스트의 문제」, 『정신문화연구』 44호, 1991.

6) 이창현, 앞의 책, 373-400쪽.

고 했다. <홍길동전>의 전반부는 한남본이 고본이며 후반부는 야동본이 고본이라는 것이다.

<홍길동전> 이본을 둘러싼 이 논의는 원전 비평이 자구의 단순한 대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남본을 보면 야동본과는 달리 어미(魚尾)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성동본이본을 보면 간기(刊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판본을 가져와서 간기 부분만 판각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경판과 안성판의 관계가 해명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에도 본격적인 문헌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전소설은 대개가 조선후기에 이루어졌고, 책을 만드는 과정이 엄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서지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일쑤이다. 텍스트 연구라면 응당 서지학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질, 제책, 판형, 자형, 판각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서지학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가 작품론을 위한 부차적 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sup>7)</sup>

### III. 주석 연구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가 본격적인 문헌학적 연구로 발돋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와 아울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주석 혹은 역주와 관련된 연구이다. 주석이나 역주는 텍스트 연구의 본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은 책이면서 문헌이고, 텍스트이면서 작품이다. 따라서 텍스트 연구라고 해서 문헌학적 영역만을 강조하다보면 문학 연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책 자체의 연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고전소설이 작품으로 인정되는 한은 작품 연구와 텍스트 연구가 서로 상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

7)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연구 성과는 류탁일의 『한국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와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학민사, 1981), 이창현의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태학사, 2000)이다.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고전소설을 이용한 문헌학 연구가 아니라 문헌학적 방법을 동원한 고전소설 연구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는 소설 목록, 모티프 사전, 용어 사전, 개별 작품의 역주 등을 위한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본격적인 문헌학적 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본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작업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작업은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목록이나 사전을 만드는 일은 텍스트 연구와 더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전소설 목록을 만드는 일은 상당한 노력이 뒤따른다. 고전소설은 표제와 권수계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며, 같은 작품이 제각기 다른 표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도서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어떤 소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목록집의 완성은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조희웅의 오랜 산고 끝에 고전소설이본목록집이 완성되었다.<sup>8)</sup> 기초 연구 분야에서 상당히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목록집은 말 그대로 이본 목록집이다.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목록집이지만 개별 이본에 대한 각종 문헌학적인 정보가 보다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다면, 나아가 이본 사이의 계통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고전소설의 문헌학적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목록집의 완성과 같은 뚜렷한 목표를 정해 놓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록집과 아울러 소설 어휘나 모티프 사전 역시 텍스트 연구가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분야이다. 이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구의 비교는 이본의 계통을 구축하는 용도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어휘나 모티프 사전을 만드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박재연은 조선시대에 번역된 중국 소설을 중국의 원전과 비교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D/B를 구축하여 『고어사전』을 만들었다.<sup>9)</sup> 이 작업은 한, 중 소설의 특성 비교 및 한국소설의 독자적 어휘 체계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조선시대 중국어의 번역에 대한 전반

8)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9) 박재연, 『고어사전』, 이희, 2001.

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전소설이 중국소설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작업은 서로 번역 관계에 있는 작품에 대한 텍스트 연구가 방대한 분량의 어휘 사전 작업으로 발전한 하나의 모델에 해당한다. 우리 소설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고전소설독해사전』<sup>10)</sup>이 발간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의 양에서 아직도 상당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어휘 사전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은 주석본의 완성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주석본의 완성이야말로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이상적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정확한 주석본이 없이는 어휘 사전이나 모티프 사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주석 혹은 역주 작업이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원전을 해독하는 능력은 고전 연구자라면 누구나 갖추었기 때문에 굳이 주석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주석 작업은 강의용이나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탓에 주석 작업 활발하게 일어나는 쪽은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문소설의 경우이다.<sup>11)</sup>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주지하듯이 고전소설은 당대에 존재했던 다른 텍스트들과의 부단한 교섭 작용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 텍스트는 소설일수도 있으며 역사서일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소설 텍스트 속에는 무수한 다른 텍스트가 직,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텍스트 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주석 연구는 어구의 기계적 뜻풀이가 아니라 텍스트의 상호통통성을 아울러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석 작업의 가닥을 도식적으로 잡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나 문장의 뜻풀이가 필요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휘 풀이를 해야 한다. 한문소설이나 어휘가 대단히 어려운 대하소설의 경우, 이 일차적 주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0) 서대석, 이광호, 이남순, 정하영, 조희웅, 『한국고전소설 독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태학사, 1999.

11) 최근에 발간된 박희병, 『한국 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텍스트 연구의 또다른 지향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원전 비평과 이본 대조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한 교합본을 만드는 일이다. 가령, <홍길동전>은 경판계열, 완판계열, 필사본계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경판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이 이본들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본으로서의 <홍길동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석본은 중요한 이본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구운몽>을 예로 들면 한문본은 한문본대로 국문본은 국문본대로 별도로 역주하여 한 책으로 묶어 놓았다.<sup>12)</sup> <구운몽>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이본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인데 주석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힘들여 한 이본 연구가 주석 작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이다. 특히 고전소설 이본 연구에서 고본이나 선본은 밝힐 수 있겠으나 원전을 밝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존재하는 이본은 무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이니 만큼 이본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여 새롭게 생산된 텍스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보를 만드는 일이 텍스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일 것이다.

셋째, 이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정보텍스트와는 별도로 작품과 작품 사이의 소통 상황을 고려한 텍스트 생산 역시 고려해 볼만 한다. 고전소설은 필사의 시대 다시 말해 구술적 사유 방식이 지배했던 시대의 기록 문학인 만큼 베끼기, 모작(模作), 부분 차용 등의 방식에 의해서 작품이 생산되는 경향이 대단히 농후하다. <홍길동전>과 <소대성전>의 관계, <유충렬전>과 <조웅전>의 관계 등 단편소설에서부터 <창난호연록>과 <옥원재합기연>의 관계와 같은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상호텍스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본 간의 소통만큼이나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런 관계까지 고려한 종합 주석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작업은 텍스트 연구의 진폭을 대단히 넓게 잡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론에서 이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폐해가 큰 만큼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폐해 역시 크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한다. 어떤 작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밝혔는데, 그 특징이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면 애써 논의한 결과가 허사로 돌아가 버

12) 정규복, 진경환, 『구운몽』,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발간 한국고전문학전집, 1996.

린다.<sup>13)</sup> 따라서 정본 텍스트의 구축과 동시에 반드시 염두에 둘 일이다.

#### IV. 영역의 확장

고전소설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 중의 하나는 연구 결과를 실용화 혹은 대중화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학계에서조차도 관심있는 몇 사람밖에는 읽지 않는 풍토이다 보니 공들여 연구한 보람이 없어진다. 학문의 길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고전소설과 연관된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연구의 실용화를 위해서 눈을 돌려볼 때가 된 것 같다.

앞 절에서 목록, 주석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일을 고전소설 교육 및 대중화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일 역시 필요하다. 고전소설은 이미 초,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최근 독서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더욱더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각종 출판사들이 고전문학 전집을 간행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소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책들을 주석 본과는 별도로 현대역 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현대역 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sup>14)</sup>

13) 특히 이러한 경우는 장편소설 연구 분야에서 많이 보인다.

14) 참고로 대표적인 출간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창작과 비평사 : <토끼전>, <심청전>, <홍길동전>, <박씨부인전>, <장화홍련전>, <북경거지>, <도깨비손님>, <옹고집전>, <홍보전>, <양반전>( <광문자전>, <허생전>, <호질>, <최생원전>, <이흥전>, <심생전>)

한겨레아이들 : <조선의 여걸 박씨부인>, <아름다운 사랑 속향>, <허생전>( <이춘풍전>), <춘향전>, <전우치전>( <조웅전>), 이생규장전( <유영전>), <금방울전>( <홍계월전>)

청솔 : <장화홍련전>·<홍부전>, <허생전>·<양반전>, <심청전>·<춘향전>, <사씨남정기>, <박씨전>·<인현왕후전>, <토끼전>·<두껍전>, <홍길동전>, <구운몽>, <금오신화> 지경사 :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한중록>, <금오신화>

웅진씽크빅 : <토끼전>, <홍부전>, <심청전>, <서대주전>·<장끼전>, <옹고집전>, <금방울전>, <최치원전>, <전우치전>, <홍계월전>, <박씨전>, <홍길

막상 출간된 서적들을 보면 작품의 선택, 판본의 선택 과정에서부터 번역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어떤 작품을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할 문제이다. 각 교육 단계에 적합한 작품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작품의 목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씨남정기>나 <구운몽>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교육해도 좋은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사씨남정기>는 현재의 여성관과는 상반된 여성상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운몽>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작품들이 고전이라고 해서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텍스트 연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작품의 선정보다는 해당 작품의 판본 선정과 번역, 책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고전소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판본의 선정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홍길동전>은 완판본이다. 이에 따라 창작과 비평사나 웅진출판사에서 출간된 <홍길동전> 역시 완판본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인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홍길동전>은 경판본이다. 이본 사이의 변이가 미세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홍길동전> 완판본과 경판본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가하면 가장 오랫동안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춘향전>은 관습적으로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을 수록하고 있다. 남원고사는 왜 채택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판본의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은 나은 편이다. 이에 판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는 연구의 초석을 위한 원전 확정뿐만 아니라 교육용 현대역 출간의 대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판본 선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정본텍스트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곧바로 현대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sup>15)</sup>

동전>, <유충렬전>, <장화홍련전>, <운영전>< <숙향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금오신화>, <박지원단편>

15) 이와 관련하여 이강욱, 「초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방향」(한국고소설학회 68차 학술대회 발표문, 2005.1.27)에서는 현대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시쓰

판본 선정과 아울러 번역의 문제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직 제대로 된 주석본도 없는 상황에서 현대역을 거론하는 것이 시기 상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무수한 현대역이 출간된 상황이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독서 혹은 교육 대상의 단계에 따른 현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 간단치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내용의 축조를 할 것인가? 원전의 문체적 감각을 어느 정도 살릴 것인가? 어려운 전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야 효과적인가? 등등 엄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sup>16)</sup> 그런가하면 고전소설은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중국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sup>17)</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문 → 주석 → 현대역”에 이르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책의 구성이나 편집 상태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 역시 텍스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현대역본들은 대개 삽화를 곁들이고 있다.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조 매개로 삽화가 들어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삽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텍스트 부분보다 큰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삽화가 서사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좋은지, 몇 장 정도의 삽화가 적절할지, 이상적인 삽화의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학자나 일러스트가 담당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삽화가 담아야 할 주된 내용이 고전소설이다. 그런 만큼 고전소설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연구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책 자체와 관련된

---

기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본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스토리와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 이본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16) 특히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체 소설은 조금만 잘못 번역해도 문체의 율격성이 훼손되고, 그 율격성을 지키자면 어려운 어휘가 생경하게 노출된다.  
17) 한겨레아이들 출판사에서 나온 신동훈 번역의 『아름다운 사랑 속향』은 원전의 중국 배경을 조선시대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다.

분야이니 텍스트 연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고전소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읽히고 있다. 이들은 원전을 모르며 고전소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본’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대 출간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방법이 전통적인 텍스트 연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텍스트 연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 V. 결론

지금까지의 언급을 통해 필자는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의 경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연구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 쟁점은 없지만 텍스트 연구는 고증학과 해석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던 것은 분명하다.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원전비평은 수많은 이본들의 계통을 마련하여 연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본격적인 문학 연구가 아니라 그 주변적 연구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문학 연구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증학을 지향하는 텍스트 연구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도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텍스트 연구는 고증학과 해석학을 겸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본의 계통을 밝히고 이본들 사이의 의미를 추적하여 해당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이러한 취지에 근접한 연구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텍스트 연구가 굳이 문학 연구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헌학 자체도 하나의 큰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학은 문학과는 별도로 독립된 학문이다.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주저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텍스트 연구가 수행할 과제는 충분히 있으며,

이제 겨우 첫 발을 디딘 영역도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주석과 역주를 통한 교합본 혹은 정본텍스트를 제작하는 작업과 이를 통한 현대역 작업으로 제시했다. 이것 역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편견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본의 계통만을 밝히는 작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어린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고전소설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본텍스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은 당장은 빛이 나지 않는 연구이며, 심지어는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텍스트 연구가 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한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텍스트, 텍스트연구, 원전비평, 정본텍스트, 고증학, 해석학.

## 참고문헌

- 김동욱, 『춘향전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 류탁일, 『완관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민사, 1981.
- 류탁일,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민사 1981.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신고」, 『관악어문연구』 13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8.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 인권환, 「토끼전이본고」, 『아세아연구』 29호, 1968.
-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국어국문학』 48호 · 51호, 1970 · 1971.
- 정규복, 「홍길동전 텍스트의 문제」, 『정신문화연구』 44호, 1991.
- 정규복, 『한국 고전문학의 원전비평적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2.

<Abstract>

## A Study on The Trend and Vision of Text Studies in Korean Classical Novel

Song, Sung-Uk

This paper have an intention of inspecting on the trends of the text-studies and indicating the vision of future, focussing on the area of korean classical novel.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text-studies is very important to the study on the korean novel. But text-studies is recognized as not the area of an essential study but an marginal study. The study of classical novel aims to study of literature, so aims to investigate the value or the meaning of the work. The study of text have an intention of the position of bibliographical study simultaneously whit the position of analytics. As a part of this studies, I suggest that the scholar who investigate text itself have to make the text as the model of example.

Key Words : text, text-studies, work, bibliographical study, analytics.